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정형외과 질환별 팸플렛 발간 | 동양고전산책 | 공지사향 | 2018년도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 접수 |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 공지사향 | 제5회 성공적인 개원 및 경영지원 세미나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 CIOS 공지사향 | 관련학회 및 국내학회 소식 | 교실소식 | 모집공고 | CONFERENCE | 의료종재원 감정사례 | 출간소식

회장 **한정수** · 이사장 **최종혁** · 총무이사 **천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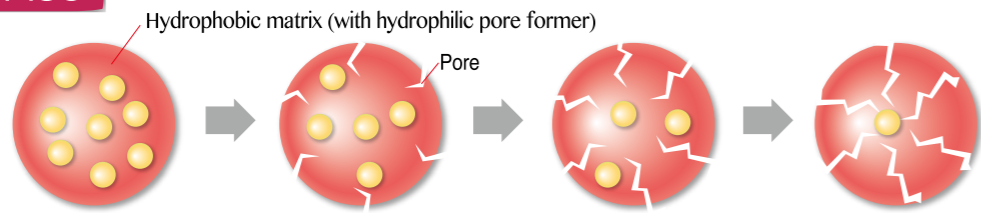
7

2018 July vol.341

PELUB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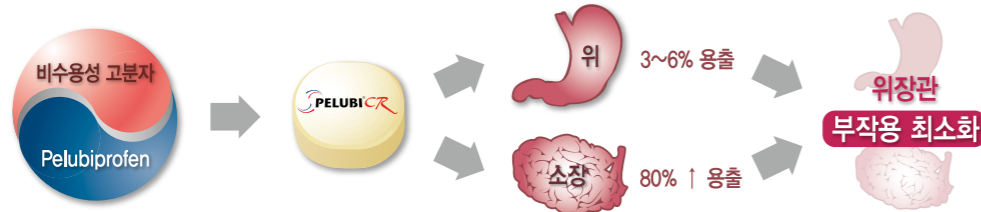
특허받은 Hydrophobic Matrix 구조로 설계되어
부종과 속쓰림이 개선되었습니다.

펠루비서방정



체액에 용해되어 생성된 미세기공으로 펠루비프로펜이 서서히 방출

서방기술 특허



서방화 기술을 통해,
펠루비프로펜이 서서히,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시지바이오 자체 개발한 “온도감응형 유착방지재” **메디클로**



01. Thermo-sensitive Sol-Gel Type
02. Bioadhesive Polymer
03. Anti-Bacterial / Hemostatic
04. Complete Excretion
05. Variable Volume

2. 화이관(華夷觀 : 중화사상)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관건은 중국인의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다. 중국인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어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것의 토대는 화이관(華夷觀)이다. 그러면 중국인의 화이관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보겠다.

■ 화이관이란 무엇인가

‘나를 중심으로 한 영역은 화려하지만, 그 바깥은 짐승 세상이다’라는 관념이다. 나를 중심으로 한 화려한 영역을 꾸며서는 중화(中華), 그 바깥의 짐승 세상을 꾸며서는 이적(夷狄)이라고 부른다. 이적이란 인간이되 중화의 물을 먹지 못한 차별적인 인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화이관을 ‘중화사상’이라는 추상적인 말로 꾸미기도 하지만, 것처럼 단순하고 치졸한 관념을 사상이라고 부르는 적절하지 않다.

얼핏 들으면 자존감의 표현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외적인 수사(꾸밈수)이다. 무력 대신 사용해보는 꾸밈수(속임수)이다. 모든 수사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제압하려는 정치적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정치학의 보완으로 여긴 것을 보더라도, 그건 서구문화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꾸밈수에 넘어간 세월이 오래면 문화적으로 종속된다. 가장 고약한 종속은 인간의 희망과 공포를 함께 지배하는 종교인데, 한반도는 중국의 화이관이라는 관념체계와 유교라는 지배체계에 종속된 바가 오래다.

■ 화이관의 역사

지나인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관념을 갖게 되었는가?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국이라고 부르던 이름은 ‘지나’로 바꾸어 부른다. 이 글에서 ‘중국’과 ‘지나’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지나의 중심부에 주(周)왕조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만들었다기보다는 주왕조 세력이 커지면서 그네들의 문자와 더불어 확산된 관념이다. 지나인들은 하(河)수와 낙(洛)수 지역을 언젠가부터 자기네 영역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중원(中原)이라고 불렀다.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왕조는 자신의 영역을 후(侯)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국(國)’들을 분봉해주는 봉건제도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데, 이때 중원에 위치한 왕이 직접 다스리는 국은 ‘중국’이라고 불렀다. 지리적 이름이 권력에

의해 정치적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지나 말고도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다. 인도도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처한 적이 있다. 나아가 주왕조는 중국과 중국에 복속하는 제후국들을 포괄해서는 ‘중화’라고 불렀다. 중국이 제정한 표준을 따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의 세력권을 꾸며 부르는 이름이었다. 자기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대를 차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중화는 이처럼 정치적 이름이지 지리적 이름이나 문화적 이름은 아니다.

주왕조 말기인 춘추시대에 이르면 지나인들은 ‘중화’에 문자학적 의미와 신화적 역사를 입힌다. 화하(華夏)라는 인물이 복희(伏羲)라는 남성과 여와(女媧)라는 여성을 낳고, 그 둘이 결합하여 소전(少典)을 낳으며, 소전은 교씨(媯氏)를 만나 황제(黃帝)와 염제(炎帝)를 낳는데, 황제와 염제가 바로 자기네 조상이라는 스토리를 만든다. 夏라는 부족 이름과 華라는 나라 이름을 결합하는 스토리를 만들고서는 자기네를 화하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화이관(華夷觀)은 하이관(夏夷觀)이라고도 부른다. 하수(夏水)라는 물 이름이나 화산(華山)이라는 산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이 무렵일 것이다. 지나의 서북쪽에서 중원으로 밀고 들어와 오늘날 지나문화의 토대를 확립한 주왕조 세력은 이렇듯 자기의 권력을 민족의 스토리로 만든다. 하이관이 정치적 애국주의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들이 나중에 세우는 한(漢)왕조가 대외적으로 더 크게 위세를 떨치자 華夏보다 漢이 자기네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더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이름도 중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름이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의 이름은 아니다. 그러다 거란(요), 여진(금), 티베트계 탕구트(서하), 몽골(원) 등 새외민족에게 시달림을 받자 지나인은 화이관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이라는 수구적인 사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때도 중화사상은 역시 애국주의였지 오늘날 민족주의와 유사한 개념은 아니었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에 밀리다가 청왕조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아예 국호를 중화로 바꾸었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원칙 또한 표방하지만 않을 뿐 그 기초는 중화사상이다. 시진핑은 중화사상이라는 옛 이름을 중국몽(中國夢)이라고 바꾸었을 뿐이다.

■ 한반도의 화이관 수용

이렇듯 중화사상은 지나인의 정치적인 대외관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인 관념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은 이렇다. 몽골이 고려를 누른 다음 고려와 종번(宗藩)관계를 설정하게 되자 고려의 지식인들은 종래의 화이관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화는 멸망하고 이적이 종주권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화란 땅의 경계나 종족의 구분에 따른 이름이 아니라 훌륭한 문물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재해석한다. 훌륭한 문물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화라는 해석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의 이적을 중화로 고쳐 섬겨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청왕조에 무릎 꿇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보다 더 나아갔다. 명왕조가 망했으니 이제 중화는 조선에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조선을 소중화라고 불렀다. 소중화라는 말은 원래 송나라가 고려를 추켜

세워주던 외교적 수사였지 고려가 자처했던 표현은 아니었던만, 이제 자처하는 표현으로 차용한 것이다. 우리가 중화라는 근거도 내세웠다. 한반도는 오래 전에 기자가 분봉 받았던 땅이므로 원래 중화에 포함되었다는 논리였는데, 이런 관념은 자존의식의 표현이라 하기에는 심한 왜곡이다. 세뇌된 중화(주자학) 교조주의자의 자기옹호적 관념이기도 하고, 패전의 책임을 감추면서 여전히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려는 수작이기도 하다. 의도적인 수작이라면 그래도 낫다. 그러나 “명은 우리의 부모이나 만주는 명의 원수이니 곧 부모의 원수이다. 신하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돼 부모를 버리겠는가.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명과의 의리는 버릴 수 없다.”라면서 척화를 주장하던 삼학사의 한 사람 윤집의 발언을 들으면 입기 보다는 딱하기 그지없다. 정치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뻔한 꾸밈수가 아니라 어이없는 충성심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멘탈리티를 지니게 된 것은 지나인들의 꾸밈수, 중화사상이라는 꾸밈수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탓이다. 조선왕조 건국 세력이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국내에 두지 않고 명에게 칭신납공(稱臣納貢)하고 책봉 받는 것에도 두면서부터 비롯된 퇴영성이다. 조선 후기 지배계층이 것처럼 퇴영성을 보였던 원인은 대외인식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화사상이라는 지나의 꾸밈수를 자신의 유일한 대외인식으로 삼는 과오 때문이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나라를 지키는 근본적인 힘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청왕조 대신 다시 일본이 침탈해오는데도 실제적인 힘을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비분강개나 현실외면과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주어진 현실을 이념적으로 해석할 방법만을 고민하는 더욱 퇴영된 모습만을 보이게 된다. 청을 종주국으로 받아들이는 퇴영성을 보였던 것처럼 식민주의도 종주국이 바뀌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 주류 사대부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과 소련이 다시 이 땅을 남과 북으로 점령해도 역시 별다른 고민이나 마찰 없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 내부의 기득권은 그들이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식민주의에 의병활동이나 독립운동으로 대항하는 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조선왕조의 주도세력은 아니었다.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 또한 사대부들이 지녔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났는지 의문이거니와, 지금 한국인이 지니는 반일감정에도 과거 조상들이 일본을 島夷로 불렀던 화이관적 관념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본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이 언제나 큰 나라를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써 발전 모델로 삼아왔던 경향 또한 마찬가지이다.

■ 요즈음의 중화사상

1992년 다시 지나와 수교하고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주류층의 지나에 대한 관념은 어떠한가? 수교 직후에는 3백 년 전 선조들의 자세와 비슷하게 얽잡아보는 자세로 출발하더니만, 근자에는 미래의 패권자처럼 대하는 자세로 바뀌어 간다. 서구인들이 아시아적 가치 운운하자 방송에서는 지금도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따위가 상연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마다 중국의 고전들을 강론한다.

지식인들이 그러는 동안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인들은 어지간한 재벌 아니고서는 줄줄이 당하고 돌아온다. 딱한 일이다.

유교를 비판하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중국의 고전 삼국지나 수호지에 대해 말해보자. 거기 등장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이란 어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삼십육계로 대표되는 온갖 계략을 동원하고, 호기 있는 대장부란 살인과 인육 먹는 일이 다반사이며, 천하는 모조리 탐욕스런 차지의 대상일 뿐이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나 외경스런 태도라곤 티끌만큼도 볼 수 없다. 오늘날 삼국지나 수호지를 통해 지나인의 그런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모르나,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 되는 동양의 고전이라거나 처세의 지혜가 담긴 보고라고 말하는 것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된 까닭은 조선의 멸망에 대한 반성과 부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경제적 발전에만 도취하여 어느덧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면서 전통사회 가치관을 회복하거나 그대로 꺼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3대를 세습하는 왕조체제를 별 저항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까닭도 집권층이 인민을 능동적으로 세뇌한 결과만은 아니라고 본다. 인민들이 갖고 있는,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왕조시대의 봉건적 관념을 적절히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은 비록 서구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한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호부터 ‘조선’을 고집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나라는 철저히 조선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 및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 및 제63차 정기총회가 10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홍은동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도 학회 홈페이지와 별도로 제작하여 학술대회 관련 정보 확인은 물론 사전등록과 초록접수가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18년 10월 18일(목) ~ 20일(토)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홍은동 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2018.koa.or.kr/>
- 등록 방법 : ①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 접속
 - ② 원편 상단에서 Login하기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하단의 Nonmember registration으로 등록 진행 가능합니다.
 - ③ 원편 메뉴 중 "Registration - On-line Registration" 클릭
 - ④ 개인정보와 참석 여부 체크 후 Next 버튼 클릭
 - ⑤ 결제 방법(무통장 입금/카드결제) 선택 후 Next 버튼 클릭 * 카드 선택시 등록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진행합니다.

• 학술대회 등록비 :

구 분	사전등록 (9월 17일(월) 자정까지)	현장등록 (9월 18일(화)부터)
전문의	150,000원	160,000원
전공의 (군의원, 간호사, 연구원 포함)	100,000원	110,000원
비회원	180,000원	190,000원

• 연수강좌 등록비 :

구 분	사전등록 (9월 17일(월) 자정까지)	현장등록 (9월 18일(화)부터)
전문의	1일권 - 70,000원 3일권 - 140,000원	1일권 - 80,000원 3일권 - 150,000원
전공의 (군의원, 간호사, 연구원 포함)	3일권 - 110,000원	3일권 - 120,000원

2. 제39차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 및 성적우수자 안내

지난 6월 9일(토), 전국 수련병원 2,3,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제39차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각 연차별 성적우수자는 아래와 같으며 오는 10월 19일(금), 제63차 정기총회 석상에서 포상을 시행합니다.

- ※ 2년차 : 조윤주(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 3년차 : 김주환(삼성서울병원)
- ※ 4년차 : 강동모(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기초 재활	감염 대사	외상	골종양	소아	척추	견주 관절	고관절	슬관절	수부	족부	평균	최고	최저
배점	7	5	6	6	14	12	7	12	12	12	7	100		
2년차	4.26	4.06	3.14	2.43	5.81	4.75	2.47	4.82	5.5	6.83	2.84	46.9	68	16
3년차	4.54	4.13	3.51	2.74	6.65	6	3.37	5.81	7.79	8.38	3.79	56.71	84	33
4년차	4.98	4.25	3.92	3.27	7.47	6.87	3.83	6.37	8.86	9.19	4.34	63.37	87	31

3. 2018년도 국·영문학회지 우수편집위원&심사위원 안내

- 국문학회지 우수편집위원 : 외상 이준영(조선대병원), CAOS 송상준(경희대병원), 우수심사위원 : 슬관절 고인준(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고관절 이영균(분당서울대병원)
- 영문학회지 우수심사위원 : 이재협(서울대 보라매병원), 이영균(분당서울대병원)

시상은 8월 23일(목) 국·영문학회지 편집위원회 워크샵에서 진행됩니다.

4.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 드리오니 로그인 하셔서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우편물 수신처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 고액 기부자 명단

- | | |
|---|---|
| 1)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실 교수 일동 - 기부액 50,000,000원 | 2)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 약정액 50,000,000원 |
| 3) 박근호 회원(전주고려병원) - 약정액 24,000,000원 | 4) 이춘실 교수(숙명여대 문헌정보학) - 기부액 20,000,000원 |
| 5) 전북의대 정형외과 교실 교수 일동 - 기부액 10,500,000원 | 6)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 기부액 10,000,000원 |
| 7) 고용곤 회원(연세사랑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 8)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 기부액 10,000,000원 |
| 9) 박중호 회원(부산센텀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 10) 신규철 회원(제일정형외과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



2018년도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 접수

대한정형외과학회 2018년도 학술상 대상 논문을 접수합니다.

시상 부문 및 상금

1.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 1) 본 상 : 임상 1편, 기초 1편 각 400만원
- 2) 장려상 : 임상 3편, 기초 3편 각 100만원

2. 외부학술상

- 1) 만례재단상 1편 200만원
- 2) SICOT '93 Seoul 학술상 : 본상 1편 300만원, 장려상 1편 100만원
- 3)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편 300만원
- 4) ISTA 2008 Seoul 학술상 1편 200만원
- 5) CIOS 학술상 1편 300만원

선정 기준

1. 학술논문상:

- 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8 Seoul 학술상
- 1) 본 학회 회원이 지상에 발표한 학술적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 2) 주 연구기관이 국내기관
 - 3) 제1 저자나 통신저자 중 1명은 본 학회 회원
 - 4) 학술상심사위원회 내규에 따른 소정 기준

나. CIOS 학술상은 CIOS 편집위원회에서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 에 출간된 논문 중 3편을 추천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 위 모든 논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기간에 지상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 1) 1978년 10월 19일 또는 이후에 출생한 회원 중 정형외과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 2) 연구논문 업적으로 심사함.

구비 서류

1. 학술논문상 :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8 Seoul 학술상 (상의 구별 없음)

- 1) 신청서 1부.
-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 3) 논문 PDF 파일 (E.mail 제출 - ortho@koa.or.kr)

* 신청서와 추천서는 하단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스캔하시어 메일 제출 가능합니다. 논문 PDF 파일이 없는 경우 논문 별책 1부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우편제출)

- 1) 지원서(소정양식)
-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자유형식) 1부

- 3) 생년월일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논문 목록에 표기한 모든 논문

서류 마감

1. 접수마감 : 2018년 7월 27일(금)
 2. 접수방법 : 모든 서류는 학회 사무국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제출
- ※ 학회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45)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서울 A타워 604호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해당병원 과장님 앞으로 공문 발송
2. 시상 : 2018년 10월 19일(금),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기총회 때

기 타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실(☎ 02-780-2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받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확정 이후 저자변경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3.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수에 제한을 하고자 한다.
중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 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는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CIOS 공지사항 7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2017년도 3월부터 공지하여 편집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1년 시행한 결과 처음부터 60일간의 소요기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일정으로 신청을 하거나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져 총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속심사제도는 회원들의 신속한 심사를 선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기한 내 심사 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전문기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공지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신속 심사 제도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정규심사 과정과는 별도로 신속심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속심사라 하더라도 논문의 투고에서 게재결정까지는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시험과 관련하여 신속심사를 통하여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가 10월말까지이므로 논문의 투고는 적어도 8월말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하고, 이후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면 진행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심사로 입금안내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 안내문>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하여 주신 연구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는 저자(author)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을 무분별하게 저자로 추가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논문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저자수를 제한하도록 결정하였고 2018년 0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종류	저자수
원저	6인 이하(전공의는 2인까지)
증례보고	4인 이하(전공의는 1인까지)
중설	3인 이하

*저자(author)란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여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투고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상기 인원 외에 논문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인원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 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장 이 순 혁



제5회 성공적인 개원 및 경영지원 세미나

- 일시 : 2018년 9월 2일(일)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2호 (서울성모병원)
- 평점 : 6점
- 등록비 : 5만원 (등록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좌장 / 연자
08:00-17:00	등 록	
08:55-09:00	개회인사	
Session I	개원을 위한 준비 I	좌장 : 이홍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09:00-09:20	병원마케팅 최신 트렌드	백진호(쥬캔즈플렉스)
09:20-09:40	개원자금 관리와 효과적인 상환방법	이주환(시티은행)
09:40-10:00	개원을 위한 입지선정 가이드	김현숙(올바른개원)
10:00-10:15	Discussion	
10:15-10:35	Coffee break	
Session II	개원을 위한 준비 II	좌장 : 문성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10:35-10:55	기본적인 장비세팅 및 선택시 유의사항	박준영(쥬메디뷰랩)
10:55-11:15	환자를 생각하는 인테리어와 병원 사인제작	김현관(주식회사 스페이스)
11:15-11:35	성공 개원을 위한 입지 계약시 유의사항	손국호(medi114)
11:35-11:50	Discussion	
11:50-13:00	Luncheon Symposium	대원제약
Session III	병원 경영	좌장 : 안익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13:00-13:20	개원의 및 개원예정자가 알아야 할 경영세무	전봉철(쥬리치메이킹)
13:20-13:40	병원원 노무의 실무적인 준비와 관리	김영훈(쥬리치메이킹)
13:40-14:00	병원 경영과 달라진 의료법	오상철(마포구보건소)
14:00-14:20	차별화된 병원 마케팅	김태민(리엔커뮤니케이션)
14:20-14:40	Discussion	
Session IV	급여청구	좌장 :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14:40-15:00	실손보험 현황 및 유의사항	이미준(강북삼성병원)
15:00-15:20	산재보험 청구	김현주(근로복지공단)
15:20-15:40	자동차보험 청구	이태연(날개병원)
15:40-15:55	Discussion	
15:55-16:15	Coffee break	
Session V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좌장 : 최중혁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16:15-16:35	설명 의무 개관과 판례를 통한 의료사고 대처방법	이정선(대한정형외과학회 고문변호사)
16:35-16:55	정형외과 행정처분 사례분석	김준래(건강보험공단 변호사)
16:55-17:15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조정 사례	강기서(의료중재원 상임 감정위원)
17:15-17:30	Discussion	
17:30-17:40	폐회 인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9대 집행부에서 시작한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지난 제60대 집행부 1차 이사회에서 학회 회관 건축기금으로 기금명 변경을 인준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분들이 기부해 주신 기금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건축기금 약정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번호	성함	소속	모금 날짜	입금액	약정액
1	김기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월 2일	100,000	7,200,000
2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월 2일	20,000	20,000
				현재 모금액 : 215,180,000원	
				현재 약정액 : 253,230,000원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 약정서

>> 기부자 정보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명 _____ 주민번호 _____ - _____

주소 _____ 자택 근무처

전화번호 () _____ - _____ 팩스 () _____ - _____ 자택 근무처

휴대폰 _____ 이메일 _____ 없음

우편물수령 자택 근무처

>> 구분

약정금액 (합계: _____ 원)

일시납: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납부

분할납: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X _____ 월

정기납: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월 1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_____ 원)

>> 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269101-04-099716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기금의 용도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

본인(회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에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우편물 수령 동의함 기부내역 공개를 원치 않음

_____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기부(약정)인 _____ (서명)

대한정형외과학회 귀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5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A Tower 606호
- 규모 : 교실형 36인, c자형 28인 수용 가능
- 대관비용 : 5만원
- 계좌안내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 무료 이용 시설 : 음향시스템(유선 마이크 2개, 무선 마이크 2개), 빔프로젝트, 냉장고, 정수기, 주차장
- 빔을 연결할 노트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사는 요청하시는 경우 학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시락 업체 연락처를 안내드립니다.
- 회의실 대관 신청서는 학회대표 이메일 ortho@koa.or.kr 또는 팩스 02-780-276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신청서

행사명			
주관학회			
대관일	20 . .	대관시간	00:00 ~ 00:00
예상 참석인원	담당자(소속 기재필)		
연락처	이메일		
영수증 발행 신청	세금계산서(VAT 별도) / 현금영수증 / 필요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시 발행받으실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회의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 . .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2일(월)	2018년 11월	30일(금)
2018년 7월	25일(수)	/	
	27일(금)		
2018년 9월	13일(목)		
	17일(월)		
	28일(금)		

CiOS 공지사항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공식 영문 저널인 Clinics in Orthopedic Science가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습니다. ESCI란 톰슨-로이터(현 Clarivate Analytics)사에서 2015년 11월 새롭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로서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등에 등재되기 전에,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ESCI 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SCIE 등재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SCIE 등재가 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국내 저널 중에서 SCIE에 바로 등재된 학술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개 ESCI 에 등재된 후 2-3년 동안 관찰을 하고 SCIE 등재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CiOS가 SCIE 등재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CiOS의 SCIE 등재를 위해 힘써온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역대 편집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고 CiOS 의 논문을 많이 인용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SCIE 에 등재될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한 논문을 많이 투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해서, 논문을 쓰실 때 CiOS에 실린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편집진은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CiOS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SCOPUS, Pubmed, Medline, 그리고 ESCI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잡지입니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에 CiOS나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반드시 논문 한 편 이상 게재하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3. 종설, 원문, technical note 등 형식에 관계 없이 많은 투고 바랍니다. 증례 보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고 접수 이후에는 저자의 추가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투고 시에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CiOS는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www.ecios.org) Archives의 모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SCI(E)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CiOS 논문을 꼭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CiOS 의 SCIE 등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5. CiOS는 심사과정을 재정비하여 게재 여부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심사위원들을 보다 확충할 예정입니다. 편집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CV와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CiOS 편집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원고 투고 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원고 투고 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다양화에 따른 저자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CiOS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기를 권장합니다. ORCID는 CiOS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학술지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CiOS 투고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1. 대한정형통증의학회 16회 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8월 26일(일) 09:30 ~ 17:00
- 장소 :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담당자 노옥주 E-mail, noj77@naver.com

2. 대한골대사학회 제21차 골다공증 연수강좌

- 일시 : 2018년 8월 26일(일) 9:00 ~
- 장소 :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 사전등록 : 8월 17일 (금)까지
- 연수평점 : 5평점
- 문의 : 대한골대사학회 홈페이지 (www.ksbmr.org)

3. 제 32차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9월 15일(토) 08:30 ~ 17:30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한연구홀
- 등록비 : 전문의 7만원 / 전공의 5만원
- 초록 접수 분야 : 연제별 5분 발표 + 2분 토론 (2018년 8월 초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확정 개시)
- 문의 :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사무실 담당자 Tel. 042-280-7342 E-mail, office@kossm.or.kr

4. 대한골다공증학회 국제학술대회 ICO 2018 SEOUL 및 추계연수강좌

- 일시 : 2018년 10월 13일(토) 08:00 ~ 20:00, 10월 14일(일) 08:00 ~ 16:45
- 장소 :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 백두
- 얼리버드 사전등록 마감 : 7월 31일 (화) / 온라인 사전 등록 마감 : 9월 19일 (수)
- 문의 : 대한골다공증학회 사무실 담당자 Tel. 031-925-9897

 **교실 소식****1. 대구가톨릭병원 RCT to CTA : Repair vs. Replace**

- 일자 : **2018년 7월 28일(토)**
- 문의 : 김준영 Tel. 010-3444-6997
- 주최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관절센터 건주관절클리닉

2. 제 3회 삼성서울병원 Knee Symposium & Live Surgery (CCTIKS)

- 일시 : **2018년 8월 19일(일) 08:20 ~ 17:54**
- 장소 :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연수평점 : 6점
- 문의 : 서태희 Tel. 02-3410-3508 E-mail. taihee28@naver.com
- 공동주최 :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3. 제 69, 70차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개최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시 : 제 69차 Knee & Ankle Workshop : **2018년 9월 1일(토) 08:30 ~ 18:00**
제 70차 Shoulder & Elbow Workshop : **2018년 9월 9일 (일) 08:30 ~ 18:00**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1F) 수술해부교육센터
- 연수평점 : 6점 010-7564-6175
- 공동주최 : 연세대학교 관절경·관절연구소,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4. 2018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일시 : **2018년 9월 7일(금) 09:00 ~ 17:20**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소강당 및 세미나실
- 참여센터 : 위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담도·췌장암, 살의질향상팀

5. 2018 경희대 Shoulder Live Surgery

- 일자 : **2018년 9월 8일(토)**
- 장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 201호 205호 및 수술실
- 문의 :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02-958-8348

6. 2018 28th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Shoulder & Elbow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자 : **2018년 10월 28일(일)**
- 장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연수평점 : 6점
- 문의 :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비서 남선정 E-mail. sas1992@hanmail.net

 **모집공고****1.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정형외과 임상교수 및 기금교수 모집 공고**

- 모집분야
-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 지원자격
1)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문의처 :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 선종근 / 의무장 김성규 Tel. 062-220-6336
E-mail. bonjourksk@hanmail.net

2. 건국대학교병원 유급 족부족관절 전임의 모집공고

- 모집분야
- 정형외과학교실 Foot and Ankle Service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2명
- 문의처 : 건국대학교병원 정홍근 교수 Tel. 010-9485-3059 E-mail. jungfoot@hanmail.net
비서 김지원 Tel. 02-2030-7746 E-mail. ji03030@naver.com

3. 2019년도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임의 모집 공고

- 모집분야
- 슬관절 (지도교수 : 최충혁)
- 족부족관절 (지도교수 : 성일훈)
- 고관절 (지도교수 : 김이석)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0명
- 문의처 :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02-2290-8485

4. 삼성서울병원 슬관절분야 2019년도 전임의 모집

- 모집분야
- 슬관절 (지도교수 : 하철원)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0명
- 문의처 : 전임의 노진욱 Tel. 010-3649-3205 E-mail. ysmjin86@naver.com

5. 은평성모병원 2019년도 유급 전임의 모집

- 모집분야
 - 슬관절/고관절 (지도교수 : 권순용, 고인준)
 - 수부, 미세수술 (지도교수 : 이주엽)
- 지원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0명
- 문의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승찬 Tel. 010-3553-4761 E-mail. hb129@naver.com

 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18	9월 1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2019	7월 11일	순천향대학교병원
	11월 8일	국립경찰병원		9월 19일	국립중앙의료원
	12월 13일	일산동국대학교병원		11월 14일	한일병원
2019	2월 14일	서울백병원	2020	12월 12일	고대구로병원
	3월 14일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2월 13일	삼성서울병원
	5월 9일	건국대학교병원		3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6월 13일	서울의료원		5월 14일	서울성모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E-mail. yooj@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18년	9월 5일	제13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7일	제131차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2019년	3월 6일	제132차	광명성애병원
	5월 8일	제133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7월 3일	제13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4일	제135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1월 6일	제136차	연세사랑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E-mail. os@yuhs.ac 담당 : 송미현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다발성장기부전/심근경색으로 사망



강기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사건개요]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병원측의 적절하지 못한 응급치료와 조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환자(77/여)는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진단받고 약물복용 중인 환자로 2016. 10. 12. 양측 무릎 통증(좌측)우측)을 주소로 외래 내원함.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 계획함.

2016. 12. 14. 심전도, 심장초음파를 포함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 가능성에 대한 내과협진 후 12. 15. 11:45-13:15 척추 마취하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 함(수술 시간은 총 1시간 30분 소요).

2016. 12. 16. 13:30 구토 증상으로 자가통증조절제 일시 중단하고, 13:45 다시 구토 있어 맥페란(위장관조절제) 1@ 정주함.

2016. 12. 17. 10:30 기침, 울렁거림, 가래 증상 호소하고, 11:00 다시 구토하여 자가통증조절제와 노스판 패치(마약성진통제) 제거함.

같은 날, 16:00 숨쉬기 힘들고 가슴 답답하며, 전신 힘없는 증상 호소함. 활력징후 90/60 mmHg-100 회/분-28 회/분-36.5 °C, 산소포화도 99% 체크됨. 심전도 모니터링 적용하고 심호흡 지지함.

같은 날, 16:40 증상 호전 없으며, 활력징후 90/60 mmHg- 120 회/분 - 40회/분 - 36.5 °C 체크되고, 의식 명료함. 심전도

검사 상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 확인됨.

같은 날, 16:50 당직의사 병동에 와서 환자 상태 확인함. 17:30 활력징후 130/100 mmHg- 103 회/분 - 40회/분 - 36.5 ℃, 산소 2 L/분 적용하고, 18:00 사설구급차 도착하여 전원됨.

같은 날, 18:20 호흡곤란을 주소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됨. 활력징후 97/66 mmHg- 124 회/분 - 26회/분 - 36.6 ℃, 산소포화도: 92%, 심전도상 ST 1,2,3 분절 상승하고, CK-MB: 80.0으로 확인됨. 좌전하행동맥의 ST분절 상승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고, 18:57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 50mg 정주함.

같은 날 19:08 기관삽관 후 경동맥, 대퇴동맥 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함. 앰부배킹 및 심장압박 시행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중단하며 에피네프린(승압제) 정주함. 19:16 심폐소생술 8분간 시행 후 순환 회복되고, 19:42 ST분절 상승의 급성 심근경색 확인되어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작함.

2016. 12. 20. 뇌파검사상 광범위한 뇌기능부전 관찰되고, 신경과 협진결과 뇌파검사에서 전반적인 활동성 저하 관찰됨. 12. 22. 체외막산소공급(ECMO) 제거하고, 12. 26. 지속적인 이뇨제 투여 후에도 소변량 감소 및 폐부종 악화되어 투석 시작함.

2017. 1. 14. 12:34 환자 사망함.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심근경색

[분쟁 쟁점]

환자측 : 좌측 무릎수술 전 심장초음파 등을 검사한 후 이상 없으므로 수술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수술 전 검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듦. 수술 후 호흡곤란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며, 시간을 지체하여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병원측 : 수술 전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고, 내과 협진을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수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후 2일째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의리를 결정하였는바, 조치는 적절하였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 전 검사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전 혈액검사, 뇨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검사는 모두 시행되었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음. 수술 전 내과 협진에서도 심장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수술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수술 전 검사 및 협의진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음. 또한 환자의 좌측 슬관절은 진행된 골관절염으로 수술 선택은 인공관절치환술 이외는 없는 상태로 적절하였음.

2) 수술 후 호흡곤란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12. 15. 수술 직후부터 약 6시간동안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였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모니터링을 중단한 기록이 있고, 12. 17. 16:00까지는 활력징후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또한 12. 15. 수술 후 통증에 대하여 자가통증조절 장치

와 노스판 패치(마약성진통제)를 부착하여 통증을 조절하였으나 12. 16. 구토 증상이 있었고, 12. 17. 다시 구토, 울렁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1:00에 자가통증조절 장치와 노스판 패치를 제거함. 같은 날 16:00에 숨쉬기 힘들고 가슴 답답하며, 전신 힘없는 증상 호소하여 활력징후 등을 측정한 결과 혈압 90/60 mmHg, 맥박 100 회/분, 호흡수 28 회/분, 산소포화도 99% 체크됨. 이러한 활력징후 기록을 토대로 12. 17. 16:00경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6:00~17:00 사이에 시행된 심전도 소견은 우선적으로 ST-분절 상승이 나타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감별 진단해야 하는 소견임. 이러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처치가 어렵고 전원 가능한 상황이면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지체 없이 가능한 빨리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17. 16:00 호흡곤란 호소로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16:40 증상의 호전이 없어 심전도 촬영결과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가 확인하고, 17:10 보호자 동의를 받은 후 18:00에 간호사 동승하에 전원하였으며, 전원 전 17:30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산소 2 L/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3) 전원조치의 적절성

12. 17. 16:40 호흡곤란 증상에 호전이 없어 검사한 결과 활력징후는 혈압 90/60 mmHg, 맥박 120 회/분, 호흡수 40회/분이고, 의식은 명료하지만 심전도검사상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빨리 전원 조치하여 발견 후 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심전도검사상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이 관찰된 후 17:10 보호자 동의 받았고, 18:00에 간호사 동승하에 전원을 시행하였으며, 전원 전 17:30 활력징후는 혈압 130/100 mmHg, 맥박 103 회/분, 호흡수 40회/분, 체온 36.5 ℃로 관찰되고 산소 2 L/분을 적용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 전원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4)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수술에 대한 내용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였고 동의서에서 확인되어 있는 상태임.

나. 인과관계

-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및 환자의 사망 원인

심근경색은 심장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막힘 현상으로 발생하며 원인은 다양함(기존의 협심증, 동맥 경화증, 고혈압, 당뇨, 나이, 비만, 스트레스, 흡연, 혈액의 이상 등). 대부분의 증상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강한 흉통이 동반되며 이때에 촬영한 심전도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증상이 없으면서 심장세포에 허혈이 진행되고 부정맥, 심혈관계 기능저하 및 심정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후자의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급성기의 대처로는 심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박동수를 줄이는 약,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 등이 사용될 수가 있고 또한 인위적으로 심장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마스크 등으로 산소를 주입함. 대개 관상동맥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을 확장하기도 하고 외과적으로 CABG(coronary artery bypass graft)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며 항응고제를 투여함.

본 건의 경우 심근경색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지만 당뇨, 고혈압, 고령, 스트레스, 수술시의 출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며, 기저질환과 노화에 의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취약한 부위의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수술 상 과실이라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것으로 사료됨.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발생한 심장기능 저하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병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조정결과]

감정서의 기재내용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입장과 의사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의 등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됨.

[예방 Tip]

1. 자동조정 개시된 사건임. 고령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사망(폐 색전증, 심근경색, 패혈증,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타)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수술 전 충분한 검사, 협진 등을 통하여 사망을 예방해야 함.
2.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사건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측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조정 개시됨(2016.11.30.시행)
3. 피신청인(의료인측)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후 14일 이내에 자동 조정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폭행·협박으로 진료방해, 교사·방조했을 때, 명예훼손(인터넷포함)을 했을 때 등은 증거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출간소식

1. 제2판 필수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수록하여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로서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의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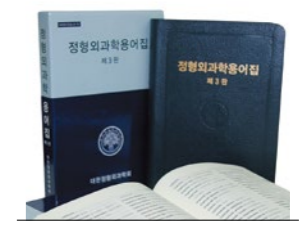
- 가 격 : 6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01-0571-043
- 구입은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출품하신 여러 선배회원님들의 노고로 1989년 10월 정형외과학용어집 제1판이 발간, 1997년 10월 제2판이 발간된 후 10년여의 세월이 흘러 거의 사용치 않는 용어도 생겨나고 정형외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새로운 용어의 탄생으로 용어집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 2판에 누락된 용어 및 새로이 탄생한 용어의 보완과 사용치 않는 용어(폐어)를 삭제하고 일본식 용어도 우리말 용어로 개정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가 격 : 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3. 「장해판정기준」- 사지및척추분야 - 개정판발간

장해판정을 하는 정형외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은 물론, 사회에서 배상 및 보상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법조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에서의 토론을 통해 2005년 초판 이후 첫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가 격 : 회원 15,000원/ 비회원 3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4. 정형외과학 7판 발간

- 구 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 격 : 300,000원대



※ 정형외과학 7판 교과서 E-book 회원전용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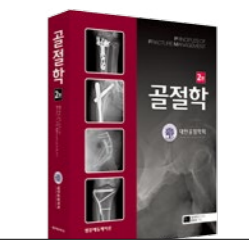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1대 집행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회의 스마트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정형외과학 7판 교과서 E-book'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 전용 모바일 서비스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모바일 페이지(<http://m.koa.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교과서 내용을 확인 및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 정형외과학 교과서 E-book 서비스는 교과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회원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E-book 이용 시 로그인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와 동일합니다.

5. 골절학 교과서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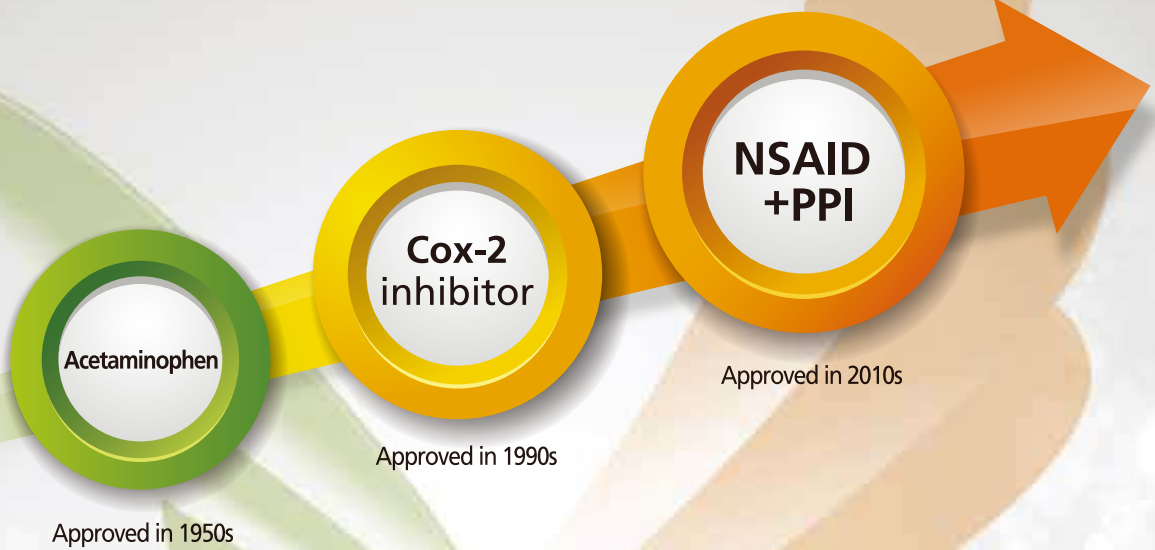
대한골절학회에서 골절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1판 출간 이후 발표된 많은 연구 업적들과 새로운 변화를 개정판에 담았으며,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례와 사진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술방법에 대해서는 QR code를 통하여 수술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 가 격 : 190,000원
- 구 입 : 범문에듀케이션(전화 02-2652-5120, E-mail medicalplus@epublic.co.kr / 온라인 www.medicalplus.co.kr)



NSAID 사용 시 고려할 게 많으십니까?

Vimovo® **하나면 됩니다!**[†]



NSAID의 Clinical practice 패러다임 변화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¹ <small>Digestive Disease Specialists Committed to Quality & Patient Care</small> AMERICAN COLLEGE ² OF RHEUMATOLOGY <small>OF RHEUMATOLOGY</small>		Canadian consensus guidelines on long-term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therapy and the need for gastroprotection: benefits versus risks ⁵
	BMC family practice ⁴ (based on NICE Guidelines)		비스테로이드소염제 관련 소화성궤양의 예방과 치료 가이드 ⁶

Guideline에서도 GI, CV risk가 우려되는 경우 **NSAID(Naproxen)+P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령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연령의 제한 없이	CV risk가 있는 관절염 환자^{4,5}	ACG ¹ , Canadian consensus guideline에서도 CV risk가 있는 관절염 환자에게 NSAID+PPI 권장
저용량 아스피린 병용[†]	LDA 병용과 상관없이 나프록센 단독 대비 상부위장관 부작용 감소	기타 요양 급여 기준	NSAID로 인해 상부위장관 문제가 우려되는 관절염 환자에서 기타 요양 급여 기준 제약 없이

[†] Alimient Pharmacol Ther. 2010 Aug;32(3):401-13. Curr Med Res Opin. 2011 Jun;27(6):1243-53. Lancet. 2013 Aug 31;382(9894):769-79.
References 1. Am J Gastroenterol 2009; 104:728 – 738 2. Arthritis Care & Research Vol. 64, No. 4, April 2012, pp 465–474 3.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08) 121, 464-474 4. Adebajo BMC Family Practice 2012, 13:23, http://www.biomedcentral.com/1471-2296/13/23 5. Alimient Pharmacol Ther 2009; 29, 481–496 6. 대한소화기학회지 2009;54:309-317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PPI= Proton pump inhibitor GI= gastrointestinal CV= cardiovascular LDA= Low dose aspirin

비모보정 500 / 20 밀리그램 효능효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프록센 등)와 관련한 위궤양 및/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히 않은 환자에서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의 증상 치료 **중복용량**: 성인 1일 2회, 1회 1정(나프록센 500mg/아스피린 200mg)씩 경구투여한다. 이 약은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시지 말고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서 복용한다. 식전 최소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①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의 성분인 NSAID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② 심혈관계 위험: 이 약에 포함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 유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생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위험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③ 위장관계 위험: 나프록센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문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스트라제네카 (02-21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LAS ID 454,872,022 | Exp. 20190217